'태안선' 청자와 함께 발견된 고려 '목간'은

제작지·수량 상세 기록 '중세의 바코드'

청자 '수요자 주문 생산' 방증…목간의 '최 대경'은 예종의 장인 최용 추정

최근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에는 고려 청자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바코드격인 목간 십여 점이 포함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400여 점의 국내 목간은 모두 통일신라 이전 것이었다. 종이가 보급된 고려 시대에는 굳이 나무에 글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11일 고궁박물관에서 십여 점의 목간 가운데 판독 가능한 4점을 공개했다.

각 목간에서는 '탐진역재경대정인수(耽津亦在京隊正仁守)', '○○재선진(○○載船進)', '○안영호부사기일(○安永戶付沙器一)', '최대경택상(崔大卿宅上)' 등의 문구와 수결(사인)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탐진역재경대정인수(耽津亦在京隊正仁守)의 뜻을 풀어보면 '탐진(조선 태조17년 이전까지 쓰인 강진의 옛 지명)이 서울에 있는 대정(하급군관) 인수(인명)에게 보낸다'로, 최대경택상(崔大卿宅上)은 '최대경 댁으로 보냄'으로 풀이된다.

목간에 등장하는 청자 인수자는 '최대경', '대정 인수', '○안영(○은 성으로 추정)'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대정 인수'와 '○안영' 앞에는 재경(在京)이라는 글자가 붙는다(○안영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목간에서 재경이라는 글자가 확인됐다).

목간의 내용을 검토한 목포대 최연식 교수는 굳이 '서울에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로 대정 인수와 안영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말단 군관에 불과한 대정 인수나 어떤 관직명도 붙지 않은 안영이 청자라는 상류층의 전유물을 사용했을 리 없으며 이들은 서울에 있는 중간인수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고려시대 청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뒤 오늘날 농산물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중간 상인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최대경'은 누구일까? 고려의 대경(大卿)은 종3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일컫는다.

제작기법과 도자기의 형태로 파악할 때 태안선에 실린 도자기의 제작연대는 12세기의 1·4분기 이전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세기 후반~12세기 초·중반까지 재위한 고려왕은 숙종(肅宗·재위기간 1095~1105), 예종(睿宗 1105~1122), 인종(仁宗·1122~1146)이다.

숙종-예종 재위 기간 고려사에는 단 한명의 대경(大卿)이 등장한다.

최씨 성을 가진 대경 최용(崔湧)이다. 고려사 14권의 기록에 따르면 예종은 재위 16년 째인 신축년에 진한공 왕유의 장녀와 대경 최용의 계녀를 귀비와 숙비로 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진한공 왕유의 장녀와 최용의 둘째 딸은 예종의 비로 입궁한 뒤 인종 7년에 각각 귀비와 숙비에 봉해진다. 이는 예종의 장인 최용이 목간에 쓰인 '최대경'은 아니었을까 또는 최용은 왕실과의 혼사를 위해 강진산 청자를 대량 주문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문학 명강의… 과연 '명불허전'

〈名不虛傳〉

인문주간 맞아 설혜심 교수 등 초청 '베스트 티처 우리시대의…' 개최

인문학 강의의 '고수'들이 전남대에서 합(合)을 겨뤘다. 승패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듣던 대로 가득 쌓인 내공이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실려 있었다.

전남대 인문대학과 인문학연구소는 '2007 인문주간'(10월8~13일)을 맞아 전국에서 '강의 잘 하기'로 소문난 인문학 교수들을 초청, 강연을 들어보는 '베스트 티처 우리시대의 인문강의' 프로그램을 10~11일 이틀간 마련했다.

전국 인문대학장이 해당 대학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명 강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교수들을 추천받아 이 중 심사를 통해 분야별 1명씩 모두 7명을 뽑았다. 설혜심(연세대·사학), 임경택(전북대·일문학), 양태종(동아대·독문학), 황위주(경북대·국문학), 이강서(전남대·철학), 김형철(연세대·철학), 조태홍(한양대·영문학) 교수 등이다.

강의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명불허전(名不虛傳)'이었다. 설혜심 교수의 특강 '근대 초 유럽의 그랜드 투어'를 들은 한 대학 강사는 "청강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다"며 "세 곳에 거점 학생을 선정해두고, 강의를 하다 막히면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등 교수 방식에 있어서도 특별했다"고 말했다.

〈양태종교수〉

〈김형철교수〉

임경택 교수의 강의 '일본인의 삶과 집단문화의 터전 : 집과 마을'을 듣고 나온 한 학생은 "너무 집중해서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착상의 수사학-설득적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생각의 틀'이라는 조금 난해한 제목의 강의를 한 양태종 교수는 동아대에서 수강생이 평균 2천명 가량일 정도의 소문난 명강의자다.

이 강의를 들은 전남대 한 강사는 "학문적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강의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며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조함으로써 전공인 수사학의 효용을 강조할 때는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황위주 교수는 '한국에서 망각된 한자·한문의 자리'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한자는 중국의 글자가 아닌 동양의 글자"임을 강조하고 한자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중에 "음~"이나 "에~"와 같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었다.

7명의 명강의자들은 12일 전남대에서 열리는 '2007년 인문주간' 폐막식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허상납 이사장으로부터 '우리시대 인문강의 우수강의자상(賞)'을 받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지 씨앗… 자연의 생명력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박노련 초대展

'대지-씨앗으로부터'

담양에 둥지를 틀고 있는 박노련씨가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을 들고 모처럼 만에 나들이에 나섰다.

박씨의 외출은 1996년 송원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 후 11년 만이다. 그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초대전으로 27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연을 바탕으로 '대지'와 '씨앗'의 생명력을 캔버스에 옮긴 것이다.

그는 자연 재료인 황토물감을 이용해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바람이 대지 위에 스쳐지나가는 듯한 깊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에 어렴풋이 등장하는 씨앗은 생명의 본질을 상징하고, 황토색 화폭은 생명을 잉태하는 모성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 인도 뉴델리국립미술관 등 다수 해외전시에 참가했으며, 전남도 문화전문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222-357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휴대전화로 입장권 구입

디자인비엔날레 '모바일 티켓팅 서비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11일 휴대전화를 통해 2007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팅 서비스'에 들어갔다.

재단이 지역 최초로 전시장에 도입한 '티켓팅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입장권 비용을 지불한 뒤 별도의 종이 입장권 대신 바코드 형태의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발급받아 입장하는 방식.

휴대전화로 입장권을 구매한 관람객은 50여 개의 작품 해설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티켓팅 서비스'는 김대중컨벤션센터내 전시장 입구에 개설된 '모바일 티켓팅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SK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부터는 KTF, LG텔레콤 이용객도 휴대전화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결제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와 함께 광주은행 계좌 결제 방법을 택일할 수 있으며, 접속방법은 SKT는 521+네이트, KTF는 521+매직엔, LGT는 521+이지아이로 접속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새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맞는 새 시립미술관이 2년여의 공사 끝에 광주 중외공원에 문을 열었다. 259억원을 들여 지은 새 시립미술관은 지상3층 지하1층에 첨단 수장고와 9개 전시실을 갖췄으며 (주)남광건설이 시공했다. 개관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는 각계 인사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퍼블릭 엑세스 활성화 특강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퍼블릭 엑세스 활성화를 위해 특강을 실시한다.

19일 오후 7시 센터에서 열리는 첫번째 강의에서는 강수연(시민방송 코디네이터)씨가 '효율적인 기획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25일에는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씨가 '퍼블릭 액세스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62-650-0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참여 뮤지컬 '선녀와 나무꾼'

13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어린이 참여 뮤지컬 '선녀와 나무꾼'이 광주 어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13일 오후 1시·3시·4시4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잘 알려진 전래동화를 뮤지컬로 옮긴 '선녀와 나무꾼'은 재미있는 대사와 노래로 어린이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작품이다.

옛날 금강산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의 목숨을 구해주고 사슴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온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장가 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게 장가를 간 행복한 나무꾼은 그러나 아이를 셋 낳을때 까지 날개옷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슴의 말을 잊고서 결국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게 된다. 문의 062-372-0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